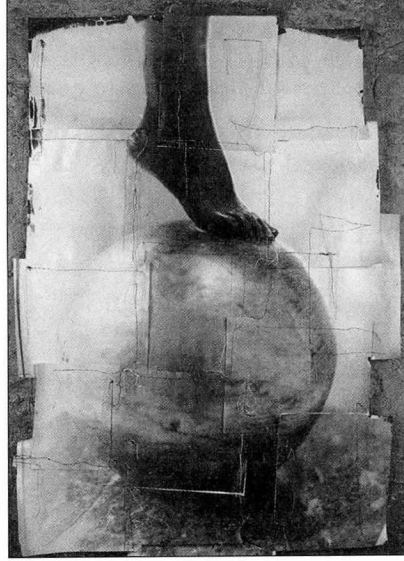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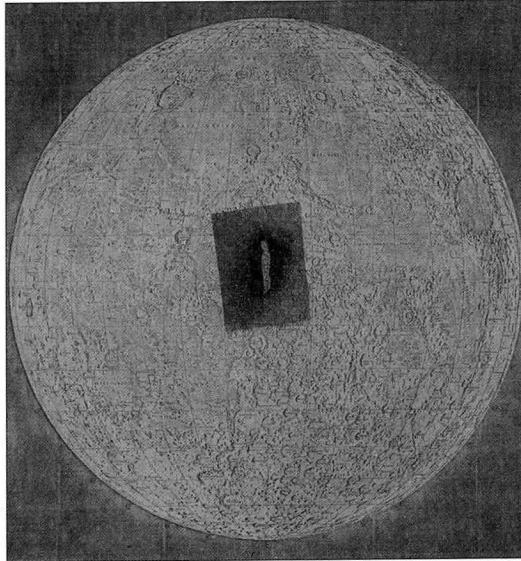


# 해체와 자아회복의 끊임없는 반복

구본창 《생각의 바다》



·〈생각의 바다 I〉(1990)소외된 인간의 극적 표현을 담았다(왼쪽). 일탈의 꿈들을 깨어 체화된 질서를 부여, 해체에서 복원을 표출한 〈무제〉(1992).

정형화된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기괴하여 혼란스럽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며 순간순간 흐르는 단상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떠오르는 추상이 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겪는 분열-일탈의 꿈, 낯선 세계에 대한 불안, 의식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기억의 화석 등이 그것이다. 흩어진 단상들을 깊듯이 빛의 공간 속에 담아낸 구본창(46)의 사진집 《생각의 바다》(1992, 행림출판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몰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빛의 포망에 타자를 가두고 좀처럼 해석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의도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인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차별성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다. 너는 너요,

나는 나만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다. 경계는 공간만의 것이 아니다. 정신세계 역시 분명한 차별성을 둔다. 인간을 지구 방위표와 숫자, 그리고 기호에 가둔 〈생각의 바다〉는 인간의 소외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햇빛은 몸체에 쏟아지는 빛줄기를 할퀴 듯 성성하게 자리한 자국은 소외에서 비롯된 자아분열을 대변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자화상〉을 그린다. 〈로마〉와 〈함부르크〉로 대변되는 낯선 곳에 서기도 한다. 토막난 신체 부위를 나열하여 단절된 의식을 표현한 〈열두 번의 한숨〉은 끊임없이 자아찾기에 고뇌하는 인간 심성을 담고 있다. 〈생각의 바다 III〉, 〈빛을 찾아서〉, 〈제주도〉 등은 그림자 또는 혼

들림의 추상성을 빌려 내재하는 번민을 표출한다. 마침내 일상적 감흥의 대상을 모두 깨매놓은 〈무제〉에 이르러 의식 또는 무의식적 단상들을 복구한다. 일탈의 꿈들을 깨어 체화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지의 신화에서 훌쩍 벗어난 사진은 피사체의 해체와 자아회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반복되는 존재 찾기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난 실체는 누구일까.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눈이 차갑다.

사진의 바다에 빠진 뒤로 작가는 〈혼돈의 숲에서〉 등 수차례 개인·그룹전을 열어 독창적 영역을 구축했다. 《생각의 바다》 이후 《아르비방 25》(1994, 시공사)를 펴냈으며, 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완진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241호 / 1998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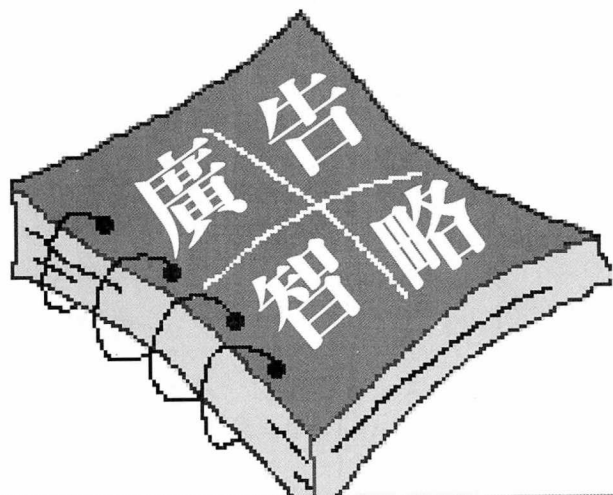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